

제2기 **미주문화**

2008
여름호



미주한국문인협회

Korean Literature of America

■ 김용팔 시인 추모 특집 ■

- 10 김용팔 약력
- 12 김용팔 시인의 시
- 16 문인귀 “시를 쓰는 사람은 시대에 살며 주소에서 호소하는 존재이다”
- 23 곽상희 저 푸른 여운 향하여...
- 32故박목월 김용팔 시인의 첫 시집 『폐허』序文』에서
- 35 Syed Ameeruddin 김용팔 시의 분석
- 41 캐더린 조(김연숙) 아버지 용서하십시오. 그리고 평안히 잠드십시오. 다시 뵙는 그날까지.....

여름시단

- | 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44 강학희 | 천국의 미소 공모전 | 82 오정방 | 이소연, 지구로 귀환한 첫 우주인아! |
| 46 강화식 | 제 3의 공간 | 84 유봉희 | 겨울잠 |
| 48 고영준 | 망아지 | 85 이기운 | 옹달샘 |
| 49 구자애 | 고무신 | 86 이서영 | 그리운 들국화 |
| 50 김경용 | 낮잠 | 87 이성열 | 춘정 |
| 52 김내수 | 울빼미 변주(變奏) | 88 이용애 | 겨울 나무 |
| 54 김병현 | 주말 산행기 | 90 이초혜 | 폭포수 |
| 55 김성수 | 대화 | 92 장태숙 | 늙은 어머니를 씻기며 |
| 58 김신웅 | 이슬 하나에게 | 94 장효정 | 문병 |
| 60 김영교 | 더불어 사는 나무 | 96 정국희 | 어디에서 무얼 할까 |
| 62 김인자 | 후회 | 98 정문선 | 봄 |
| 64 김형오 | 나비 달을 몰다 | 100 정어빙 | 독백 |
| 65 김희주 | 조각달 | 102 정춘자 | 무지개 |
| 66 박경호 | 유턴(U-turn) | 104 조영철 | 가짜 청자 |
| 68 박민흠 | 토막 난 목각인형의 비애 | 105 조주현 | 이슬 |
| 70 박복수 | 봄의 환상 | 107 차신재 | 강물 |
| 72 백선영 | 편도 승차권 | 108 최석봉 | 데스벨리 새벽하늘에
가오리연을 띄우다 |
| 74 변재무 | 바보야 | 110 최익철 | 제비의 노래 |
| 76 송정룡 | 경우가 그렇지 아니한가 | 112 한길수 | 재봉틀 |
| 78 안선혜 | 물의 노래 | | |
| 80 오연희 | ‘깜빡깜빡’ | | |



권두언 / 등단제도를 돌아본다	김동찬	6
계간 <미주문학> 신인상 작품모집		표2
계간 <미주문학> 구독 안내		4
문협소식		314
편집 후기 / 판권		318
표지 사진 / 최문향(소설가, 사진작가)		표지

이창래 에세이

114 강치범 번역 다시 집으로

수	131	강정실	담배와 웰빙	152	정찬열	좋은 친구는 축복
	138	고정희	인내의 꽃	155	지희선	레이디의 새끼 사랑
필	143	김태영	소나기	158	최향미	속 깊은 아이
	148	이정아	따로 또 함께			

소설	162	박경숙	집	210	전삼미	이제야 알겠다
	191	이진이	광란의 아리아	249	전지은	산 안개가 걸리면

아동문학	269	동화/이미경	내 이름은 레옹
	282	동시/이송희	가족사진

계간평	295	정호승	미주문학 (08 봄호)의 시
	302	임현영	미주문학 (08 봄호)의 산문

제5회 한글백일장

성인부장원	학생부장원		
284 안현정	꽃나무가 봄을 만나다	290 김아이린	우리 집
성인부차상	학생부차상		
286 최용완	나무	291 김해린	우리 집
287 김영규	우리 집	293 유다은	나뭇잎 아기의 여행

계간 <미주문학> 구독 안내

계간 <미주문학>은 우리의 자산
모두 정기구독 찬조자가 됩시다

<미주문학>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요, 발표의 장입니다. <미주문학>이 1년 네 번 발행되는 계간지로 정착되었음은 이미 다 아는 일입니다.

이것은 문협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미주 문학인들의 발표 지면이 늘어난 것을 뜻하며, 곧 우리 모두의 창작 의욕을 돋우고, 전체 문학계의 활성화로 직결됨은 다시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.

또한 이것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, 우리 회원들을 비롯한 미주 문학인들을 위한 일입니다.

아울러 계간 <미주문학>이 회원들끼리만, 미주 문학인들끼리만 나눠 보는 회원지, 또는 동인지의 한계에서 벗어나, 모든 문학 애호가들도 볼 수 있도록 일반 판매를 위해 작품의 질을 높이고, 편집 제작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밝혔습니다.

우리 모두 계간 <미주문학>의 정기구독 찬조자가 됩시다. 그리고 주위의 문학 애호가들에게도 정기구독을 권고합니다.

우리는 이것을 네 번(호)의, 또는 여덟 번(호)의 책값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저 계간 <미주문학>을 위해 찬조한다고 생각합니다.

계간 <미주문학>이 잘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면, 그 열매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. 다른 누구도 아닌, 모두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지 않겠습니까.

우리 모든 문학인들에게 계간 <미주문학>에의 지원을 거듭 요청합니다.



미주한글문인협회

<찬조자 및 정기구독자 명단은 매달 문협월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.>